

Market Trends of Packaging Materials in Hongkong

홍콩 포장재 시장동향

- KOTRA 글로벌원도우(<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자료 제공 -

I. 홍콩 포장재 시장규모 및 동향

1. 시장 규모

2017년 홍콩의 포장재시장 규모는 총 46억 7,600만 홍콩달러(약 6,683억 원)로, 포장재 전체 시장 중 일반 음료포장(22억 홍콩달러)의 시장 규모가 가장 크며, 유제품(9억 6,500만 홍콩달러), 알코올음료(4억 1,400만 홍콩달러) 등의 포장이 뒤를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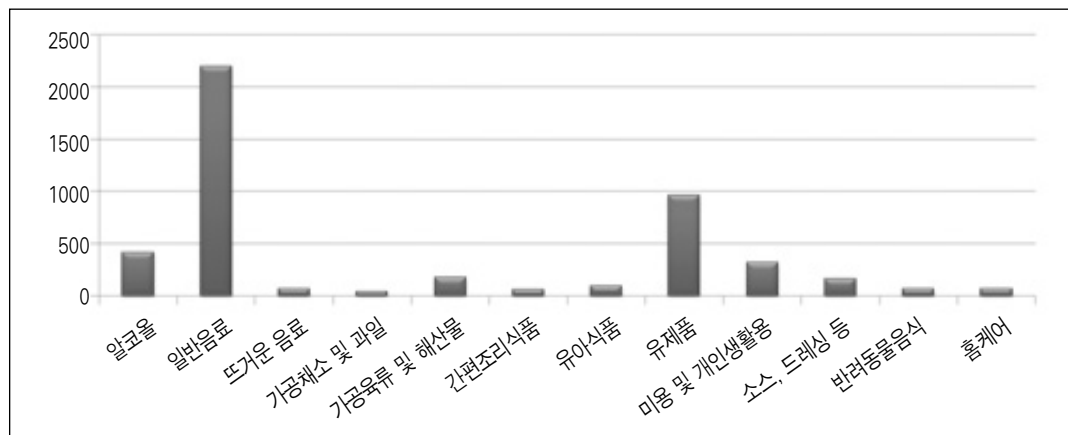
2. 시장 동향

① 재활용 포장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재활용 포장재를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

(그림 1) 2017년 홍콩 포장재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홍콩달러)



분해성 플라스틱은 오존층 파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가볍고 부드러운 생분해성 비닐 소재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특히 미용제품 포장은 재활용 용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② 설명이 간략한 포장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Mintel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39%의 소비자들은 식품 및 음료 포장에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 것 같다고 응답했으며 해당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밝혔다. 반대로 간략한 문구로 된 포장은 소비자들이 더욱 호의를 느낀다고 한다.

③ 편리한 포장

식품 및 음료 포장 시장 트렌드 키워드는 ‘안전’, ‘실용’, ‘편리’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프 및 스낵 같은 액체류 포장은 손잡이 및 액체를 따르는 입구를 별도로 설계하고 있다. 또한 상점에서 진열하기 편하도록 설계한 포장제품도 진열시간을 아낄 수 있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④ 개별 포장

홍콩 무역발전국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로 개별 포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개별 포장은 휴대하기 간편하고 정확한 양 조절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부모들이 어린이용 음료 포장은 작고 가지고 다니기 편한 개별 포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이며, 이는 포장재 산업의 기회라고 분석했다.

II. 주요 경쟁기업

홍콩 무역발전국 마켓플레이스 (<http://www.hktdc.com/suppliers/china-wholesale-suppliers/en>)에 등록된 포장업체는 주로 쇼핑백, 비닐, 박스, 식품 포장 등으로 검색된다.






홍콩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포장재는 대부분 수입 육류, 채소, 과일 포장이 있다. 또한 외식 시 남은 반찬 포장하는 일회용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도 많다. 잔반도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대부분의 홍콩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포장해가는 것을 선호한다. 생산기업 대부분은 홍콩이 아닌 중국 광둥성에 생산공장을 두는 경우가 많다.

III. 수입규모 및 동향

2017년 홍콩 포장재(HS Code 3923 기준) 총 수입액은 45억 1,200만 홍콩달러이다.

전 세계 포장재 수입국가 중 한국 수입량이 2015년부터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표 1] 포장재 주요 생산 업체

회사명	제품	제품 사진
Orient Packaging	Cling Wrap Film, Meat Film, Pallet Film 등	
Animate International (H.K.) LTD.	액세서리 종이 박스, 금속 박스, 쇼핑백 등	
Polybag.com.hk	비닐, 종이 가방 위주	
NG WAH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식품 포장	
Pack & Vac Limited	플라스틱 용기	

[자료원 : 해당 업체 홈페이지, 홍콩 무역발전국]

36.9% 증가한 4,700만 홍콩달러로 나타났다.

IV. 홍콩 포장재의 유통구조

음료, 식품 포장은 주로 브랜드 자체적으로 포장을 생산하고 있다. 가공 육류 또는 채소류는 바이어가 제품을 받아 포장한 후 유통채널(마트, 백화점 등)에 전달한다고 한다. 또는 유통채널에서 직접 식품을 받아 자체적으로 비닐 포장을 하기도 한다. 홍콩 무역발전국 포장재 보고서

[표 2] 2015~2017년 HS Code 3923 수입규모

(HS Code 3923: Articles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of Plastics: Stoppers, LIDS, CAPS and Other Closures of Plastics) (단위 : 백만 홍콩달러, %)

순위	국가명	2015년		2016년		2017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중국	4,210	-8.5	3,908	-7.2	3,797	-2.9
2	대만	187	+17.3	148	-21.2	144	-2.6
3	일본	199	-8.9	170	-14.8	131	-22.9
4	마카오	67	+2.9	70	+4.2	68	-1.9
5	미국	103	+19.6	92	-10.8	66	-28.5
6	말레이시아	59	+11.8	50	-14.4	51	+1.0
7	한국	29	+36.7	34	+18.3	47	+36.9
8	태국	33	-14.7	29	-13.3	37	+28.1
9	베트남	23	+29.5	23	-2.8	28	+21.2
10	싱가포르	41	-48.1	26	-36.6	26	-0.7

[자료원 : 홍콩 통계청]

[사진 1] Vanguard에서 직접 포장한 과일



[사진 2] 한국서 수입한 과일을 바이어가 포장



에 따르면 주로 중국의 옷, 전자제품, 장난감, 신발, 시계, 보석, 가정용품, 선물용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고객들이 홍콩 회사와 협업을 한다고 한다.

V. 시사점

홍콩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포장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이 포함된 용기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활용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하고 있다.

또한 활용도가 높고 편리한 포장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포장은 가능하면 봉투 마개 홀더를 씌우거나 지퍼팩 형태로 제조하는 것이 선호된다.

한편, 한국 포장재 수입시장은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다. 2014년에 수입이 급감했었으나 2015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이어오고 있다. 홍콩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7월 수입액은 이미 2017년 전체 수입액

을 뛰어 넘은 5,263만 홍콩달러로 나타났다.

Rebecca JiIn Hui 홍콩 홍콩무역관은 “한국 제품이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이 홍콩 시장에서 잘 작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